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 속

-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	-------	----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	-------	----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6
-----------------------	-------	----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7
---------------------	-------	----

편편 플레이

브레인업	58
다른 그림 찾기	59

위드포토	60
--------	-------	----

위드큐티스티커	63
-----------	-------	----

교육활동	65
--------	-------	----



6월 교육내용 믿음의 삶



암송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6장 35절 -

♥첫째주♥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둘째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믿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하반절)

*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셋째주♥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요!

♥넷째주♥

“생명을 얻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실천 내용

-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요.
-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족과 친구를 위하는
내가 되어요.

6월 첫째주
2023년 6월 4일~10일



memory time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첫째주

♥ 주제 : 믿음의 삶

♥ 암송구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 열왕기상 8:56

♥ 오늘의 주제 :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 왕상 8:51-56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나요? (56절)
- ②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요? (56절)
- ③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53절)
- ④ 솔로몬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였나요? (54절)
- ⑤ 내가 가장 최근에 했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STORY



친구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식하고 평안히 살리라!(신 12:10)”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안식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지키고 있는 믿음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보세요.

Pray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 2023.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에스라 1:1-11 “고레스의 조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 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빈다.
- 잡혀 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 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 그 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 이웃 사람들은, 자원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 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로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게 하였다. (생략)
-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오천사백 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 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조서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귀국 : 외국에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옴

세간 : 집안 살림에 쓰는 모든 기구



with
관찰

1.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인가요? (2-3절)

- ① 고레스 ② 다윗 ③ 솔로몬 ④ 세스바살

2.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신전에 둔 그릇을 꺼내어 유다의 총독 '누구'에게 넘겨
주었나요? (8절)

- ① 고레스 ② 다윗 ③ 솔로몬 ④ 세스바살

with
생각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번째 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시키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과 진귀한 보물들도 함께 주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렘 25:11-12). 이 예언은
70년이 지나고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2:1-70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2.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생략)
61.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 실래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래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래 집안으로 네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32.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63.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임**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 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64.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다.
(생략)
68.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에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69. 저마다 힘 자라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육만 천 다리, 은이 오천 마네, 제사장의 예복이 백 벌이나 되었다.
70.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이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명단 : 어떤 일에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적은 표

장가 : 남자가 아내를 맞는 일, 결혼

적합 : 꼭 알맞음

우림과 둠임 :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 뽑는 제비와 같은 존재, 높은 성직자들이 흥패에 가지고 다니던 것

회중 : 많이 모인 사람들

기금 : 어떤 목적에 쓸 자금(돈)

with
관찰

1.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몇이었나요? (64절)

만 천 백 십명

with
생각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때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만 이천 삼백 육십 명이나 되었지요.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각각 자기의 능력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3:1-13 “번제를 드렸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 제단을 쌓았다.
3.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생략)
4.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5.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딧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6.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 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7.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 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8.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 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생략)

•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이태 : 두 해(2년)

통곡 : 소리를 높여 슬피 울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1절)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하였다.

with
생각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일곱 달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체를 드렸어요. 이 년이 지난 후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집 짓는 일꾼들이 성전의 기초를 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with
결심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군대를 만들거나,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 하심을 구하며 예배를 했던 것이에요.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4:1-10 “방해하는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2.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앗시리아 왕 애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 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4.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5.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6.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7.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단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 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8. 르훔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9. 그 때에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 귀족 오스납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우두머리 : 어떤 일이나
단체의 으뜸인 사람

매수 : 돈 등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들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3절)

□ □ □ □ 과 □ □ □ 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 □ □ 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오.”

페르시아 왕 □ □ □ 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with
생각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강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고
하며 사실은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각 가문의 우두
머리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근거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할 일이
라고 하며 그 요청을 거절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 건축을 방해 하였
어요.

with
결심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방해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 하는 것이 있다면
스룹바벨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단호히 물리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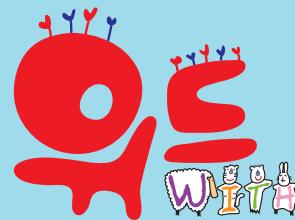
나의 기도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6장 35절 -



6월 둘째주
2023년 6월 11일~17일



memory time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믿음

둘째주

◆ 주제 : 믿음의 삶

◆ 암송구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21 하반절

◆ 오늘의 주제 :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믿음 ▷욥기 1:6-12, 20-22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8절)

② 어려움을 당한 욕은 엎드려 무엇을 했나요? (20절)

③ 욕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나요? (22절)

★ 교육 활동 - “예배해요” 무드등 만들기

준비물 - 활동지, 가위, 풀, 색연필, 싸인펜 등

- ① 활동지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② 활동지 안에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 ③ 활동지를 동그랗게 말은 다음에 풀로 고정해주세요.
- ④ 스마트폰 또는 손전등 위에 활동지를 올려놓으면 무드등 완성
(미니촛불을 사용해도 되요)
- ⑤ 무드등을 켜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DISH PRAYER



친구들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끼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친구들은 감사할 수 있나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융이에요.

융은 모두가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융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융의 종들이 와서 융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융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지만 융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융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보아요.

Pray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4:11-24 “공사가 중단 되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립니다.
12.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흘러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13. 이 일을 임금님께 아립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생략)
14.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잊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15.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새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16.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21. (생략)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22.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3. 르훔과 심새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24.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이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상소문 :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재건 : 다시 지음

무력 : 때리거나 부수는 따위의 힘

with
관찰

1.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언제까지 중단되었나요? (24절)

페르시아 왕 년

with
생각

르훔과 심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왕에게 반역하여 다시는 세금, 조공, 관세를 바치지 않아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상소문을 보냈어요. 이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결국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이년 까지 중단되고 말았어요.

with
결심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 예배하는 일로 인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5:1-17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때에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2.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3. 바로 그 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이 스달보스내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4.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돋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5.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6.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은, 스달보스내와 동료 관리들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생략)
13.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생략)
16.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출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17.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참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회답 : 편지에
대답하거나 답장함

완공 : 공사를 완성함

칙령 : ~를 공포함,
명령함

with
관찰

1. '누구'와 '누구'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나요? (1절)

- | | |
|-------------|------------|
| ① 이사야, 예레미야 | ② 학개, 스가랴 |
| ③ 이사야, 학개 | ④ 학개, 예레미야 |

2. 닷드내 총독은 스달보스내와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누구'에게 글을 올렸나요? (6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멈추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닷드내와 스달보스내 일행들이 찾아와 누가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했는지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말하였지요. 닷드내와 스달보스내는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려 이 일을 보고 하고, 진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with
결심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말씀을 가까이 하며 위로와 소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6:1-12 “다리우스 왕의 명령”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2. 메대 지방 암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3. “고레스 왕 일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육십 자가 되게 하고,
4. 벽은 돌 세 겹에 나무 한 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5.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생략)
6.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댈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7.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숫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8.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9.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별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10.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서고 : 책을 보관해
두는 방이나 건물

국고 : 나라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기관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8절)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을 짓는 유다의 □□□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에서 댸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되지 않게 하여라.”

with
생각

다리우스 왕은 바빌론의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어요. 그러자 악메다 궁에서 옛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거기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with
결심

4장에서는 르훔과 심새의 비방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5장에서는 다시 시작된 건축으로 인해 닷드내 일행이 다리우스 왕에게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이렇게 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듯 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리우스 왕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을 철저히 물리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잘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리우스 왕을 통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둘째주

4

with
말씀

에스라 6:13-22 “성전 봉헌식을 올렸어요”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닷드내 총독과 스달보스내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14.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15.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육년 아달월 삼일이다.
16.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17.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백 마리와 숯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숯염소 열두 마리를 바쳤다.
18.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19.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21. 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22. 그들은 아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앗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4절)

“□□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with
생각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리우스 왕
육년 아달월 삼일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속죄제와 유월절, 그리고 즐거운 마음
으로 7일 동안 무교절도 지켰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나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 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합니다.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사도행전 9장 1-6절 (새번역성경) / Acts 9:1-6 (NIRV)

Faith - Trusting in what you can't see because of what you can see.

믿음 -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

1.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4.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팁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팁박하는 예수다.
6.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Acts 9:1-6 (NIRV)

1. Meanwhile,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He went to the high priest
2.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in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there who belonged to the Way, whether men or women, he might take them as prisoners to Jerusalem.
3. As he neared Damascus on his journey,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4.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5. "Who are you, **Lord?**" S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
6.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Vocabulary

Lord - 주(님)

persecute(-ing) - 박해하다

ask(-ed) - 질문하다

reply(-ied) - 대답하다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5. "Who are you, L____?" Saul a_____.

"I am Jesus, whom you are p_____," he r_____.

ENGLISH BIBLE STUDY



Interpretation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더니, 사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예수님 이셨죠.

Application

How do you know that emotions exist when we cannot see them? Although we cannot see them, we can still feel the emotion. Thus, we believe that they exist. In today's scripture, we see a man who did not believe in Jesus; he could not see. However, he met Jesus and became his disciple.

There was a man named Saul. Although he believed in God, he did not believe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ur. Therefore, he caught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and persecuted them to give up their faith. But one day, he was on the way to Damascus.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Saul. Saul was shocked, so he fell to the ground. There was a voice, "Salu,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It was the voice of Jesus. Saul met Jesus whom he did not believe in.

After meeting Jesus, Saul's life changed. Saul believed in Jesus more than anyone else and shared the good news with others. Dear friends! It is difficult to believe in Jesus whom we cannot see. However, Jesus would show himself to us in different ways so that we can have faith in him. Let's love and trust Jesus, who gives us faith, all the time! Bless and love you!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는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말씀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쳤어요. 사울이 너무 놀라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누군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팝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때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타나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Acts 9:5, NIRV

사도행전 9장 5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5. “Who are you, Lord?” S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

- Acts 9:5, NIRV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6장 35절 -



6월 셋째주
2023년 6월 18일~24일



Memory time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셋째주

- ♥ 주제 : 믿음의 삶
- ♥ 암송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아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 ♥ 오늘의 주제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사야 41:1-10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요!

★ 말씀나눔

- ① 말씀에서 그의 칼은 무엇 같게 한다고 말하나요? (2절)
- ②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4절)
- ③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6절)
- ④ 하나님께서 의로운 어떤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나요? (10절)
- 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STudy

Prayer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다양한 도움들이 있지만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벨론 주변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10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은 언제 가장 어려움을 느끼나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보세요.

Pray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7:1-10 “돌아온 학자 에스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드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라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2.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둡이요,
3.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므라욧이요,
4.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웃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기요,
5.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6.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인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다.
7. 아드사스다 왕 칠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칠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9.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인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10.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능통 : 사물의 이치에
환히 통달하다, 잘 알다



with
관찰

1.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학자는 누구인가요? (10절)



with
생각

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바빌로니아에 잡혀갔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지만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7:11-22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12.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13.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14. 나와 나의 일곱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 보아라.
15.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16.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17.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18.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19.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20.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제사장이자 학자이며, 이스라엘에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11절)

- ① 다리우스 ② 고레스 ③ 에스라 ④ 닷드내

2.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예물도 가지고 가게 한 왕은 누구인가요? (12-16절)

- ① 아닥사스다 ② 고레스 ③ 다리우스 ④ 닷드내

with
생각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바빌로니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중 에스라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게 하였고, 가서 하나님께 유행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떠한지 살펴 보라고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많은 보물과 제물들도 가져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with
결심

아닥사스다 왕은 칙령을 내려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였어요. 이들은 완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요. 또 왕은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 제물도 아낌없이 제공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해 예배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 물품을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3.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에스라 7:23-28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 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므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총애 : 남달리 귀엽게
여기며 사랑함

with
관찰

1. 본문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28절)

“... 주 나의 □□□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므로,

나는 □□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with
생각

아덕사스다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여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말라고 하였어요. 에스라에게는 법관과 판사를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재판을 맡아 보게 하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율법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였어요.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with
결심

아덕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였지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대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4

with
말씀

에스라 8:1-20 “돌아온 레위 사람들”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2.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의 아들 핫두스요, (생략)
15.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 가에 불러모으고, 거기에도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16.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 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과, 학자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17.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18. 하나님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열여덟 명과,
19. 하사뱌와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스무 명이다.
20.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이백이십 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인사 :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

with
관찰

1. 에스라는 사람들을 ‘어느’ 강가에 불러 모았나요? (15절)



with
생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 중 성전에서 일할 일꾼인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스라는 족장 9명과 학자 2명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내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어요. 그들은 38명의 레위 자손들을 데려오고 성전 일을 도울 220명도 데리고 왔어요.

with
결심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봉사’라는 사명을 이루는 길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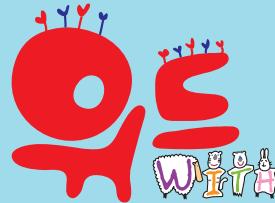
한줄 기도 :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6장 35절 -



6월 넷째주
2023년 6월 25일~7월 1일



memory time



생명을 얻는 믿음

넷째주

♥ 주제 : 믿음의 삶

♥ 암송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5

♥ 오늘의 주제 생명을 얻는 믿음 ▶요한복음 6:26-35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29절)

②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하였나요? (33절)

③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35절)

★ 교육 활동 - “믿음의 입술 만들기”

준비물 - 색종이 (가능하다면 양면이 같은 색깔의 종이)

- ① 가능하다면 양면이 같은 색의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 ② 사각으로 반씩 접었다 펴주세요.
- ③ 각 모서리를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모아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 ④ 뒤로 돌려서 위아래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반씩 세모로 접어주세요.
- ⑤ 양 모서리 쪽을 접어주세요.
- ⑥ 뒤로 뒤집어서 길쭉한 부분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접어주세요.
- ⑦ 뒤로 뒤집어서 위아래 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 ⑧ 손을 다 끼워 넣고 가운데로 향하게 밀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

Family Time

넷째주

친구들은 무슨 떡을 가장 좋아하나요? 아마도 시루떡, 꿀떡, 인절미, 송편 등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떡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 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 배가 고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늘 가득차요. 그래서 마음이 배고프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Pray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넷째주

1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8:21-36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그 곳 아하와 강 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를 엎드려서 빌었다
(생략)
-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를 들어주셨다.
- 그 때에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열둘, 곧 세레뱌와 하사뱌와 그들의 형제 열 명을 뽑아 세우고,
-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 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생략)
- 첫째 달 십이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생략)
-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 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 양 일흔일곱 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열두 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1. 에스라는 아하와 강 가에서 모두에게 '무엇'을 하라고 선언하였나요? (21절)
① 예배 ② 경건 ③ 찬양 ④ 금식

2.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35절)
① 금 ② 은 ③ 번제 ④ 곡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에스라는 모두에게 금식을 선언하였어요. 돌아가는 행렬에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 민족이나 강도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아다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9:1-15 “회개 기도하는 에스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2.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섭니다.”
(생략)
5.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앓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6. 기도를 드렸다.“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날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생략)
9.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략)
14.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 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5.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 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말씀을 읽고 나의 말로 답을 적어 보세요. (2, 14절)

with
생각

에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과 래위인마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관계를 끊지 않고 결혼하여 거룩함을 저버리는 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with
결심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었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에스라처럼 나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10:1-15 “진정한 회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소리로 슬피 울었다.
2. 그 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3.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4.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5.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생략)
9.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때가 아홉째 달 이십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뜰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0.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11.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12.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1절)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를 □□□하고 그의 □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을 끊어야 합니다.”

with
생각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자, 이스라엘 사람 모두 모여 큰 소리로 슬피 울었어요. 그때 스가냐가 이제 율법대로 이방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보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게 하니 모두가 맹세하였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뜰에 모여 큰 비를 맞고 떨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with
결심

에스라의 회개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과 이방 아내를 끊어버리라는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였어요.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켜 바로잡는 행동까지 포함되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 바로잡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3.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에스라 10:16-44 “조]에서 돌아킨 사람들의 이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16.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17. 이듬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18. 제사장의 무리 가문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리야이다.
19.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숫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쳤다.
20. 임멜의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21.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22. 바스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요,
23.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24.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요,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25. 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마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생략)
44.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with
관찰

1.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책임을 맡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

제사장

with
생각

에스라는 각 가문마다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3개월이나 걸린 조사가 끝난 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아내를 보내기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속건제를 드렸어요.

with
결심

본문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지요. 이방 여자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이 슬프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3.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소금>

프론티어즈

맛을 잃은 소금 길 가운데 버려져 밟히나니 (X2)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리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리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린 소금

빛을 잃은 등불 길 가운데 버려져 밟히나니 (X2)

등불이 빛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리오

세상을 환히 밝히는 우리는 등불

등불이 빛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리오

세상을 환히 밝히는 우린 등불

우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린 빛과 소금

우린 빛과 소금

사랑하는 OO(야)야,

이번 달은 에스라서를 함께 읽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니?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주고, 깜깜한 밤에 빛이 되어 주는 등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OO(이)가 되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에스라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 주세요.
-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말씀 <시편 82편, 새번역>

-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라질 것이다.”
-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공의를 베풀며,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떠한 일에도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해. 자 함께 기도하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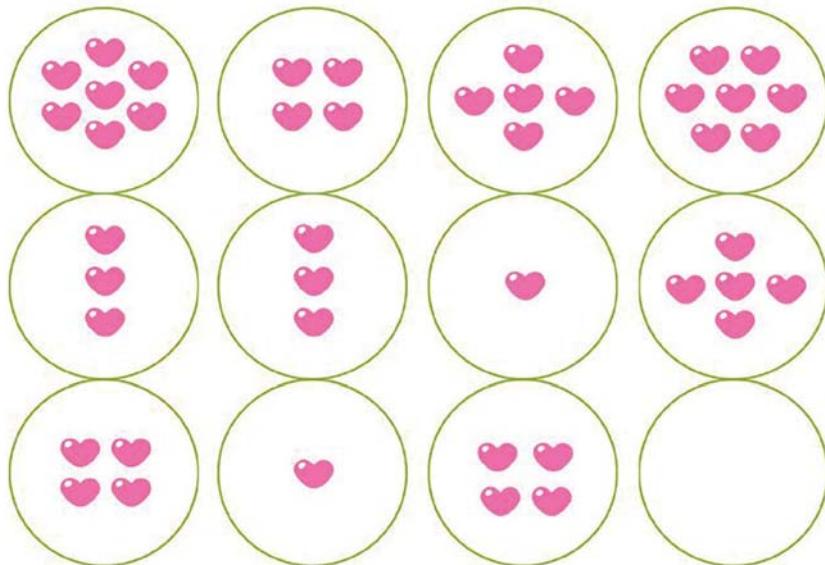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돋고 함께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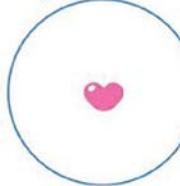
FUN FUN PLAY

브레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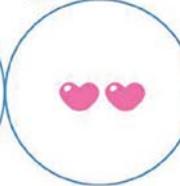
다음 패턴을 잘 살펴보고 빈 공간에 들어갈 패턴을 아래에서 골라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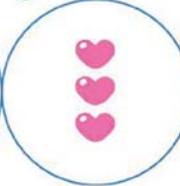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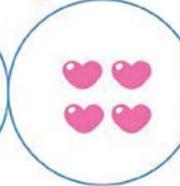
2



3



4



정답은 62p에서 찾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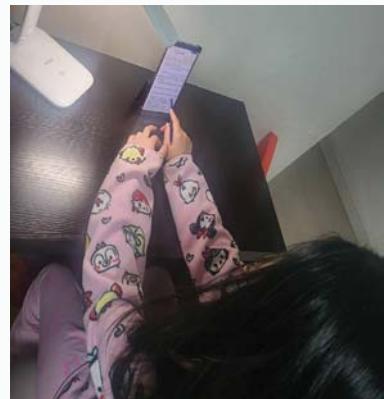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15:12]

정답은 62p에서 찾아 보세요!





♥ ❁ ✎

초등 2부 3-3 장태연



♥ ❁ ✎

초등 2부 3-12 김다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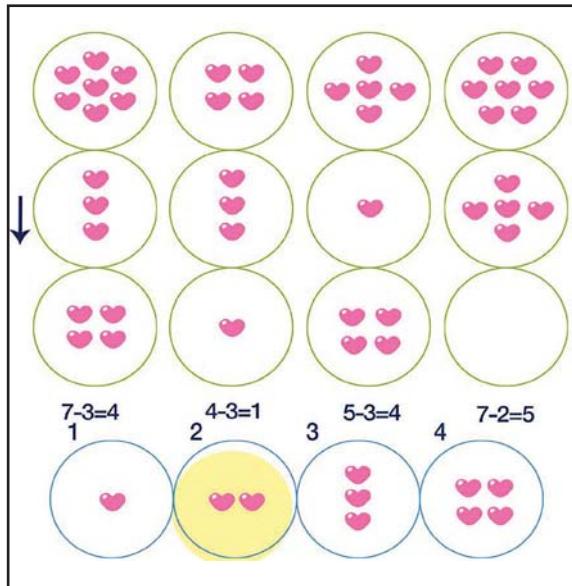
초등 2부 3-15 최현성



♥ ❁ ✎

초등 2부 4-14 정유진

브레인업 정답



다른 그림 찾기 정답



6월 QT STICKER



부 학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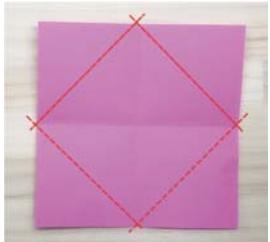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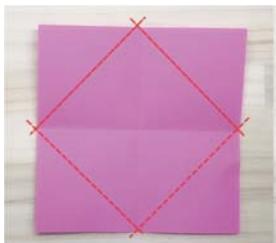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도안 안에
그려주세요

풀칠 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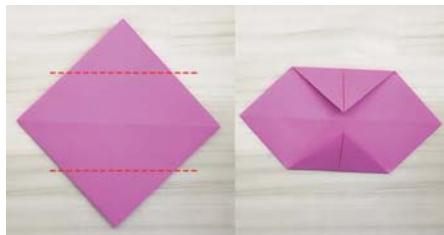
출처 : <https://blog.naver.com/4rangsea/222277895758>,
<https://www.youtube.com/watch?v=TokjKBqexC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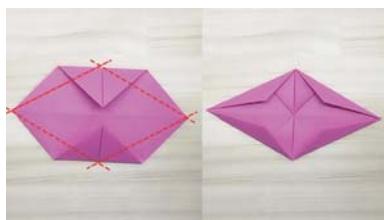
1) 사각으로 반씩 접었다 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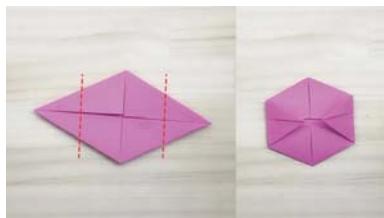
2) 각 모서리를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모아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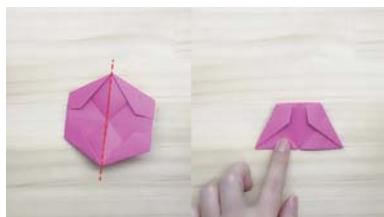
3) 뒤로 돌려서 위 아래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반씩 세모로 접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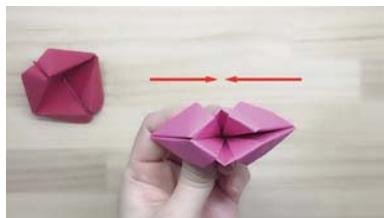
4) 뒤로 뒤집어서 길쭉한 부분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접어주세요



5) 뒤로 뒤집어서 위아래 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6) 손을 다 끼워넣고 가운데로 향하게 밀어주세요.



7) 움직이는 입술 완성!